

헤드라인

‘마이데이터’ 내년 2월 시행…개인정보 스스로 지킨다

기사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0/4731020/>

본문
(본문 내용 복사)

[✓ 금융사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 원하는 곳에 모아 조회 & 관리

신용 &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앱 연동해 쇼핑 후기 작성, 부동산 구매 땀 대출비교도]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데이터 주권이란 개인이 스스로 본인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려면 우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 같은 생각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 산발적으로 있던 금융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 마이데이터가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란 개인 신용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해 고객 신용, 자산 관리를 해줍니다. 마이데이터 앱으로 고객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뱅킹(PB)’을 모든 고객이 누리는 겁니다.

■ 마이데이터는 누가 하나요.

마이데이터를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상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 곳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습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은행 4곳, 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 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사 6곳, 금융투자사에서는 미래에셋 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핀테크 기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이 심사를 통과했고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도 포함됐습니다.

■ 마이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월 납입액, 금리,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일, 이자 등) △보험(보험 만기일, 납입금액, 주기 등) △신용카드(결제 내역, 청구금액, 할부 정보 등) △금융투자상품(거래단가, 잔액, 예수금 등) △통신(통신료 납부 내역, 소액결제액 등) △지급결제(간편결제, 간편송금, 전자화폐 충전금액) 등이 조회 대상 정보입니다. 그 밖에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 분야 신용정보도 마이데이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앱에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마이데이터 앱은 한마디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소비·지출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해줍니다. 또 신용도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맞는 대출·보험·카드 등 금융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고객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소득을 추정해 노후 계획을 짜주고 그에 맞는 보험 상품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p>■ 마이데이터가 쇼핑, 부동산 등 다른 분야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p> <p>쇼핑과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 네이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용자의 각종 후기를 모으는 플랫폼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자가 영수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올려야 하지만, 마이데이터로 결제 내역을 연동해 곧바로 후기를 남기는 식입니다. 부동산 매물과 시세를 알려주는 '네이버 부동산'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고른 뒤 각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 곧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데이터가 다른 분야와 만나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p>
정리	<p>✓ 데이터 주권 : 개인이 스스로 본인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리</p> <p>✓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 :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 산발적으로 있던 금융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는 제도</p> <p>[마이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신용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제도 -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가능 - 금융사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해 고객 신용, 자산 관리 해줌 - 앱으로 고객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뱅킹(PB)'을 모든 고객이 누릴 수 있음 <p>● 마이데이터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 - 여신전문사 : 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 카드와 현대캐피탈 - 금융투자사 : 미래 에셋 대우 - 핀테크 기업 :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링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 페이코 <p>● 마이데이터로 확인가능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금·대출, 보험, 신용 카드, 금융투자 상품, 통신, 지급결제,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 분야 신용정보 <p>● 앱에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소비·지출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컨설팅 - 신용도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맞는 금융 상품(대출·보험·카드 등)을 추천 - 생애 주기에 맞는 소득을 추정해 노후 계획을 짜주고 그에 맞는 보험 상품도 추천 가능 <p>● 다른 분야와의 접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각종 후기를 모으는 플랫폼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 결합 - 마이데이터로 결제 내역을 연동해 곧바로 후기를 남기는 식 - '네이버 부동산'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고른 뒤 각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 곧바로 대출을 신청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p>✓ 내부 시스템·인력으로 한계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외부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기획' 집중</p> <p>■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 Ex) 대출추천서비스
 - ➔ 기존 대출이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어느 대출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
 - ➔ 이를 위해서는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재무 데이터와 대출 데이터, 소비 패턴 등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농협은행과 SC 제일은행, KB 국민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외부 클라우드에 구축
- 전산을 직접 구축하기보다 외부 업체로부터 저장 공간이나 기술을 제공받아 비용 절감
- 서비스 기획에 집중하며 빅테크와의 경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

■ 현황

(1) 농협은행

- 자산관리 플랫폼인 올원뱅크에 네이버 클라우드 도입
- 예적금 특판 이벤트 등 대량의 접속이 예상될 때 네이버 서버를 통하도록 함

(2) KB 국민카드

- 올해 자산관리용 앱인 리브메이트 3.0 과 간편 결제 앱인 KB 페이를 외부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서비스(AWS) 로 옮김
- 두 앱을 합친 통합 앱도 외부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

(3) 롯데카드

- 웹서비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2 년 전에 이미 IBM 의 클라우드로 옮김
- 최근 들어서는 여신·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클라우드 망을 IBM 과 함께 개발해서 쓰고 있음

(4) 4 대 시중은행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 보안에 대한 우려로 외부 클라우드 도입에 신중
- 아마존 MS 등 외부 클라우드 업체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
-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부문 계열사인 신한 DS 와 하나 금융 티아이, 우리 FIS 를 통해 내부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

